

『대성지성문선왕전』 좌도에 대하여
『大成至聖文宣王殿』座圖에 對하여

金 庠 基
〈서울대학교 名譽教授〉

(1)

현재(現在) 소수서원(紹修書院)에는 안희헌(安晦軒)[향(珦)]영정(影幀)을 비롯하여 주신제(周愼齋)[세봉(世鵬)]와 이오리(李梧里)[원익(元翼)]의 영정(影幀) 그리고 『대성지성문선왕전(大成至聖文宣王殿)』 좌도(座圖) 등(等)이 소장(所藏)되어 있다. 그런데 전기(前記) 삼위(三位)의 영정(影幀)은 이미 세간(世間)에 널리 알려져왔거니와 본 좌도(本座圖)는 그다지 알려지지 아니한 듯하다. 본 좌도(本座圖)는 종(縱)이 117cm, 횡(橫)이 65cm로 세견(細絹)과 흡사(恰似)한 얇은 당지(唐紙)에 그린 착색화(着色畫)로서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공자(孔子)]을 정점(頂點)으로 하여 공문(孔門)의 십철(十哲)을 비롯한 칠십자(七十子)[성수(成數)를 든 것] 및 자사(子思), 맹자(孟子)와 원대(元代)까지의 중국역대 명유(中國歷代 名儒)들을 면복 집홀(冕服 執笏)의 장복(章服)차림으로 반차(班次)[관계(關係)의 친소(親疎) 및 시대(時代)의 원근(遠近)에 의(依)한 것]를 따라 좌우(左右)에 각각 2열(列) 또는 3열(列)로 열좌(列坐)시킨 좌도(座圖)인 것이다.

이제 본 좌도(本座圖)를 고찰(考察)하기에 앞서 먼저 중국(中國) 및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공자중심(孔子中心)의 회사(繪事)에 관(關)하여 살펴보면 중국(中國)에 있어서의 공자(孔子) 및 칠십자(七十子)의 상(像)으로는 먼저 전한(前漢) 문옹(文翁)의 공자묘도(孔子廟圖)를 들 수가 있는바¹⁾ 이 문옹도(文翁圖)는 당대(當代)에 행(行)하던 효당산석실(孝堂山石室)·무씨(武氏)[무량(武梁)]사(祠) 등(等)의 예(例)와 같이 이른바 安之樂석궐석실(石闕石室)의 화상석(畫像石)의 류(類)가 아니었던가 하며 이밖에 공자(孔子)의 사당에는 대개 유상(遺像)이 봉안(奉安)되었던 듯하다.

그런데 학궁(學宮)에 그것을 도형(圖形)한 것은 후한 영제(後漢 靈帝) 광화원년(光和元年)[서기(西紀) 178]에 홍도문학(鴻都門學)을 설립(設立)하고 공자(孔子) 및 칠십이제자(七十二弟子)를 도형(圖形)한 것이 그의 시초(始初)라 할 것이다.¹⁾ 그리고 당(唐)·송이후(宋以後)로는 국자감(國子監)의 학사(學舍)·묘랑(廟廊)의 벽상(壁上)에 공자(孔子)와 그 제자(弟子) 및 역대선유(歷代先儒)를 도형(圖形)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事例)처럼 되

1) 文翁은 韓의 景帝·武帝時人으로 일찍이 蜀郡太守가 되어 크게 文風을 일으켰으며 또 孔子의 石室墓를 지어 孔子를 비롯한 聖賢의 像을 雕成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史記·仲尼弟子列傳의 索引에 『唯文翁 孔子廟圖 作七十二人』이라 하였으며 葉昌熾의 語石(卷5)에 『文翁 石室禮殿 畫古聖賢象 趙卿(○岐) 自營壽藏圖 季孔子產 晏嬰叔向四賢 拜爲贊頌 此又琢石納諸壙 或伐石樹闕以刊之 ……… 今皆不可得見矣………今世所傳者 唯孝堂山武梁祠 爲最古亦最完 云云』이라 하였음

1) 鴻都是 宮門의 이름인바 靈帝때에 그 안에 學舍를 두고 諸生의 誦業과 課試를 行케하였는데 이를 鴻都文學이라 하였다. 當時 鴻都는 辟雍·東觀·蘭臺·石室·宣明等 으로 더불어 典籍을 藏아두는 곳이기도 하였음. 鴻都門學에 關하여는 後漢書 靈帝記 光和元年條 및 同書 儒林列傳叙參照

기에 이르렀다.²⁾

중국(中國)에 있어서의 이러한 사례(事例)는 우리나라에까지 파급(波及)되었던 것이니 삼국사기(三國史記)[卷8]에 의(依)하면 성덕왕(聖德王) 16년 [당(唐), 현종(玄宗) 개원(開元) 5년 서기(西紀) 717]에 견당 사수충(絹唐 使守忠)이 당(唐)으로부터 돌아와 문선왕(文宣王) 십철(十哲) 칠십이제자도(七十二弟子圖)를 바치며 그것을 대학(大學)에 안치(安置)하였다는 기사(記事)가 보인다.³⁾ 이것이 문헌상(文獻上)으로 볼 때에 공자(孔子)와 그 제자(弟子)의 화상(畫像)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초(始初)이거니와 다음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그러한 풍(風)이 또한 뒤를 이어 행(行)하여졌던 것이니 이도 또한 송(宋)·원(元)의 영향(影響)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고려(高麗) 성종(成宗) 2년(서기(西紀)983)에 박사(博士) 임성로(任成老)가 송(宋)으로부터 문선왕묘도일포(文宣王廟圖一鋪)와 제기도일권(祭器圖一卷) 등(等)을 가져다 바쳤으며 선종(宣宗) 8년(서기(西紀)1091)에는 국자감벽상(國子監壁上)에 칠십이현(七十二賢)을 도형(圖形)하고⁴⁾ 숙종(肅宗)6년(서기(西紀) 1101)에 이르러 국자감(國子監)의 문선왕전 좌우랑(文宣王殿 左右廊)에 새로이 61자 21현(61子 21賢)의 상(像)을 그려 석전(釋典)에 종사(從祀)케 하였다. 그리고 충렬왕(忠烈王) 30년(서기(西紀)1304)에 안희현(安晦軒)이 담학전(膽學錢)의 여자(餘資)로서 박사(博士) 김문정(金文鼎) 등(等)을 원(元)에 보내어 선성(先聖) 및 칠십자(七十子)의 상(像)을 그려오게 하고 아울러 제기(祭器)·악기(樂器)·육경(六經)·제자사(諸子史)를 구(求)해왔으며 충숙왕(忠肅王) 7년(서기(西紀)1338)에는 문선왕상(文宣王像)을 소조(塑造)하기로 하였던 것이니 이는 왕삼석(王三錫)의 주청(奏請)에 의(依)한 것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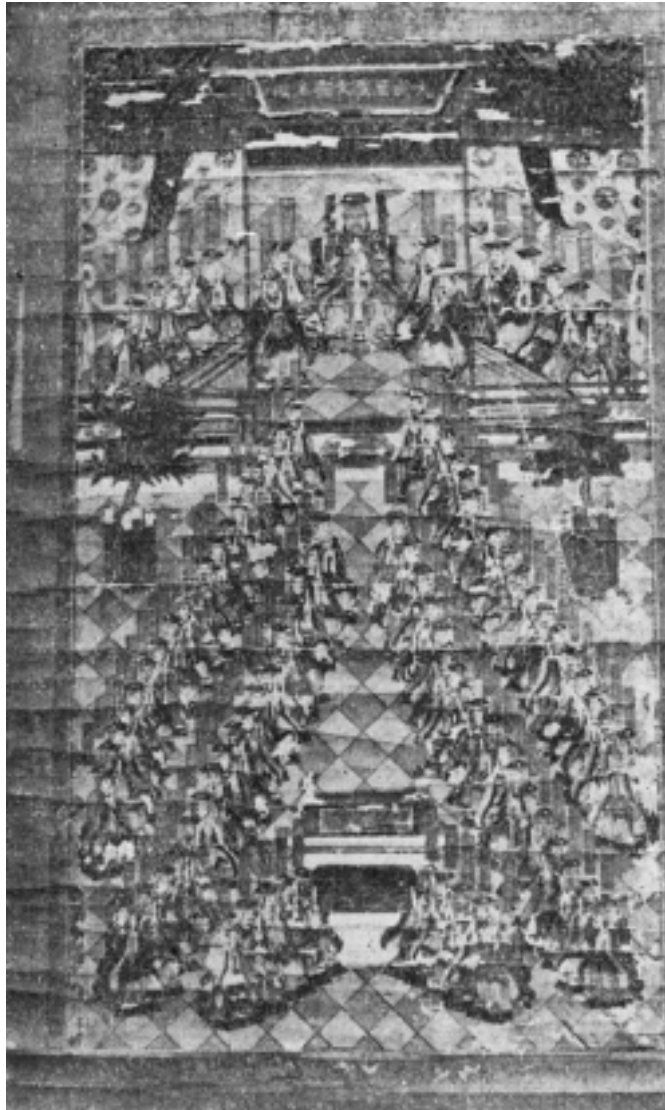
상(以上)에서 고대(古代)에 있어서의 공자(孔子) 및 칠십자(七十子)의 도형(圖形)에 관(關)하여 개술(概述)하겠거니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러한 고대(古代)의 화상(畫像)은 인멸(湮滅)된지 이미 오래이며 근대(近代)의 것으로는 소수서원 소장(紹修書院所藏)의 본 좌도(本 座圖)가 최고(最高)의 고본(孤本)인 것이니 이는 본 좌도(本 座圖) 좌측(左側)[향(向)하여) 란내(欄內)의 이제(耳題)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정덕(正德)[명(明)·무종(武宗)] 8년 (조선(朝鮮) 중종(中宗) 8년 서기(西紀) 1510) 5月初(初) 6일에 그려진 것이다. 그리고 본 좌도(本 座圖)는 위에서도 언급(言及)하였거니와 그 제(題)[대성지성문선왕전(大成至聖文宣王殿)]가 보여주고 있듯이 공자중심(孔子中心)의 조열(朝列) 반차도(班次圖)인 바 제하(題下)에 명(明)의 진왕(晉王) 촉왕(蜀王)의 찬(贊)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명(明)의 국가기관(國家機關)도 아마 국자감(國子監)의 원도(原圖)에서 우리나라 온 것이 아닌가 역측(臆測)된다.

2) 唐·宋때에는 國子監의 廟堂에 塑像이 奉安된 일이 있음(唐會要 卷35 褒崇先聖條 및 宋史·禮志 文宣廟條 參照)

3) 中國에서는 唐·玄宗 開元 27년에 孔子를 文宣王이라고 追諡하였는 바 이 三國史記에 보이는 文宣王은 追諡年 代보다 20餘年에 앞섰으며 또 唐에서 孔子와 七十子(成數를 든것)의 像을 國子監의 廟壁像에 그린 것이 玄宗 開元 8년의 일이고 보면 三國史記의 이 年代는 或시 錯誤된 것이 아닌가도 臆測되며 十哲은 七十二 弟子에 包含되는 것인바 여기에 보이는 文宣王 十哲 七十二弟子圖라 한 것은 或시 孔子十哲圖 및 七十子(七十二弟子)圖의 二種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도 臆測되는 바 中國에서도 唐代로부터 흔히 先聖十哲과 七十子の 그림이 나누어 圖形 되기도 한 까닭이다.

4) 그대에 그린 72賢의 位次는 宋·國子監의 것에 依하였다함 (高麗史 禮志4·文宣王廟條 參照)

5) 王三錫은 南蠻人으로서 高麗에 歸化한 者임



「대성지성문선왕전(大成至聖文宣王殿)」座圖 65cm×117cm(화면(畫面))

(2)

다음 본 좌도(本 座圖)의 유래(由來)에 수반(隨伴)되는 문제(問題)로서 공자이하(孔子以下) 역대선유(歷代先儒)의 추익연혁(追諡沿革) 및 본 좌도(本 座圖)에 들어있는 문제(問題)의 인물(人物)에 관(關)하여 개찰(概察)할 필요(必要)가 있는 것이다. 중국(中國)에 있어서의 공자(孔子) 및 칠십자(七十子)에 대(對)한 국가적추존(國家的追尊)은 당(唐)·현종(玄宗)때에 비롯된 일이니 개원(開元) 27年(서기(西紀) 739)에 공자(孔子)를 왕(王)으로 추존(追尊)하고 문선(文宣)이라 익(諡)하는 동시(同時)에 칠십자(七十子)에 대(對)하여도 각각 공후백등작(公侯伯等爵)을 추증(追贈)하였다. 송(宋)·진종(眞宗) 대 중상부원년(大中祥符元年)[서기(西紀) 1008]에 이르러 공자(孔子)에게 『현성(玄聖)』을 가익(加諡)하여 현성문선왕(玄聖文宣王)이라 칭(稱)하더니 현자(玄字)가 국휘(國諱)를 범(犯)하였다하여 『지(至)』로 바꾸어 현성(玄聖)을 지성(至聖)이라 하였으며 원(元)·

무종(武宗) 즉위(卽位)의 해(서기(西紀)1307)에 다시 공자(孔子)에게 대성(大成)을 가익(加諡)하여 대성지성문선왕(大聖至聖文宣先王)이라 칭(稱)하기에 이르렀던 바 이는 실(實)로 안희헌(安晦軒)이 김문정(金文鼎) 등(等)을 원(元)에 보내어 선성(先聖) 및 칠십자도(七十子圖)를 그려온(전술(前述)) 3년후(3年後)의 일인 것이다. 그 뒤 명(明)에 이르러 세종(世宗) 가정(嘉靖) 9년(서기(西紀)1530)에 공자(孔子)를 지성선사(至聖先師)라 개칭(改稱)하고 칠십자이하(七十子以下) 역대현유(歷代賢儒)의 작호(爵號)도 제거(除去)하여 다만 선현모자(先賢某子)라 칭(稱)하는가 하면 목주(木主)를 만들어 받들고 소장(塑像)을 제거(除去)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공자(孔子)와 선현(先賢)을 추향(追享)함에 있어 허례적(虛禮的)인 것을 배제(排除)하고 정명(正名)을 중(重)히 여기는 유가(儒家)의 본연적자세(本然的姿勢)로 돌려놓으려는 일대획기적(一大劃期的)인 처사(處事)라 할 것이다.⁶⁾ 이 밖에 본 좌도(本座圖)에 나타난 배열자(配列者) 97.8名 가운데에서 좌측(향(向)하여) 第3 내열(內列)의 말위(末位)에 임천군공(臨川郡公) 오징(吳澄)⁷⁾이 보이는 바 원학사(元學士) 오징(吳澄)은 명(明)·선종(宣宗) 선덕(宣德) 10년(서기(西紀) 1435)에 공묘(孔廟)에 종사(從祀)되었다가 세종(世宗) 가정(嘉靖) 9년(서기(西紀)1530)에 이르러 사류(士類)사이 오징(吳澄)의 절조(節調)에 대(對)한 비난(非難)이 일어나 마침내 공묘(孔廟)로부터 출척(黜斥)을 당(當)하였다.

이러한 점(點) 등(等)을 종합(綜合)하여 살펴보면 본 좌도(本座圖)의 원본(原本)은 서기(西紀) 1435年으로부터 1530年 사이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며 그리고 본 좌도(本座圖)는 전거(前舉)한 바와 같이 그의 회성연대(繪成年代)가 서기(西紀) 1513年으로서 오징(吳澄)이 공묘(孔廟)에 종사(從祀)된지 79년후(年後)요 그가 공묘(孔廟)에서 출척(黜斥)된지 17년전(年前)에 해당(該當)하는 것이다.

(3)

다음 본 좌도(本座圖)의 필치(筆致)를 살펴보면 화법(畫法)이 너무나 규격화(規格化)되고 세련(洗練) 纖細한 위에 본 좌도(本座圖)에는 공묘(孔廟)에 배향(配享)된 아국(我國)의 선유(先儒)가 들어있지 아니하고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오징(吳澄) 같은 이가 들어있는 점(點) 등(等)으로 미루어 보아 명인(明人)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생각컨대 본 좌도(本座圖)의 원본(原本)이 중국(中國)에서 작성(作成)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그 모사본(模寫本) 혹은(或)은 부분(副本)이 우리나라에 전래(傳來)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는 전거(前舉)한 여러 가지 사유(事由)로 보나 또는 이러한 류(類)의 그림이 역대(歷代)로 중국(中國)에서 대개 들어온 사례(事例)로 보아 그러하다. 그런데 본 좌도(本座圖)가 어떠한 사유(事由)와 경로(徑路)를 겪어 소수서원(紹修書院)에 갇히게 되었는지는 지금에 있어 찾아 볼 도리가 없다.

그런데 원래(元來) 소수서원(紹修書院)은 중종(中宗) 37년(서기(西紀) 1542)에 당시(當時) 풍기군수(風基郡守)로 있던 주신제(周愼齊)가 안희헌(安晦軒)의 구택지(舊宅址)

6) 清朝에 이르러서도 世祖 順治2年(西紀1651)에 孔子를 大聖至聖文宣先師라 號하였다가 同14年에 다시 至聖先師라 하였음

7) 吳澄은 元來 宋臣으로서 元朝에 入仕하여 榮達을 누렸음

에 회헌(晦軒)을 봉사(奉祀)키 위(爲)하여 사우(祠宇)를 세우고 그 익년(翌年)에 거기에 다시 서원(書院)을 세워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 이름하였던 바 명종(明宗) 5年(서기(西紀) 1550)에 주신제(周愼齊)의 뒤를 이어 풍기군수(風基郡守)로 있던 이퇴계(李退溪)[황(滉)]가 조정(朝廷)에 아뢰어 전결(田結) 및 사액(賜額)을 청(請)하여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액(額)을 받게 되매 이름도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 개칭(改稱)된 것이니 이는 실(實)로 우리나라에 있어 서원(書院) 및 사액서원(賜額書院)의 시초(始初)인 것이다.

이러한 점(點)을 고려(考慮)에 넣어 생각할 때에 특(特)히 소수서원(紹修書院)은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공자(孔子) 및 칠십자상(七十子像)과 숙연(夙緣)을 지닌 안회헌(安晦軒)을 주벽(主壁)으로 한곳인 만큼 앞서 명(明)으로부터 전래(傳來)된 본 좌도(本座圖)가 어느 기연(機緣)으로 말미암아 해서원(該書院)으로 이관(移管)케 된 것이 아니던가 한다.

어쨌든 본 좌도(本座圖)는 실(實)로 귀중(貴重)한 가치(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이니 이는 비록 모사(慕寫) 또는 부분(副本)이라 할지라도 필치(筆致)가 주건(週建)하고 규격(規格)이 정제(整齊)하며 착색(着色)이 또한 선아(鮮雅)한 위에 백(百)에 가까운 인물(人物)에는 그 풍모(風貌)에 각각 개성적(個性的)인 특징(特徵)[기록(記錄)에 보이는]을 나타내고 있어 생기(生氣)가 약동(躍動)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니 이는 다만 공묘(孔廟)의 구성(構成)·의식(儀式)·복식(服飾) 등(等)에 관(關)한 참고(參考)가 될 뿐만 아니라 세간(世間)에 허다(許多)히 전(傳)하는 불화(佛畫)에 대(對)한 대표적 유화(代表的 儒畫)로서 또한 이채(異彩)를 발(發)하기도 하는 것이다.